



스위스재보험, 2009 년도 순이익 5 억 6 백만 스위스프랑,
주당순이익 1.49 스위스프랑 기록
완전한 자본력 회복 및 AA 등급 초과자본 90 억 스위스프랑 이상
예상

Contact: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Corporate Communications, London
Telephone +44 20 7933 3445

Corporate Communications, Asia
Telephone +852 2582 3660

Corporate Communications,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663

Investor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4444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2010년 2월 18일, 취리히 – 스위스재보험은 2009년 한 해, 순이익 5억 6백만 스위스프랑, 주당순이익 1.49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AA 등급 초과자본은 90억 스위스프랑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에도 스위스재보험의 근간사업은 수익성을 유지했으며 위험축소와 재무구조 강화 면에서 현저한 향상을 보였다.

스위스재보험의 최고경영자 스테판 리페(Stefan Lippe)는 “우리가 지난해 많은 일들을 해내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자본력을 충분히 회복했고, 상당한 위험축소와 함께 재무구조를 강화했으며, 그룹 전체가 언더라이팅 수익성 향상과 체계적인 비용관리에 노력, 핵심사업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고객을 지원하고 주주를 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자기자본 57 억 스위스프랑 증가

8억 6천 4백만 스위스프랑의 순손실을 기록한 전년에 대비 5억 6백만 스위스프랑의 순이익을 기록, 2009년 실적은 흑자로 돌아섰다. 회사채 헤지(hedge)로 인한 19억 스위스프랑의 시가평가손실과 주로 증권화 상품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한 20억 스위스프랑의 감액손실이 순이익에 영향을 주었다. 주당순이익은 2008년의 -2.61 스위스프랑 대비 1.49 스위스프랑을 기록하였다.

2009년 말 현재 자기자본은 2008년말 2백 5억 스위스프랑 대비 2백 6십 2억 스위스프랑으로 증가했다. 2009년 자기자본이익률은 2008년 -3.4%에서 2.3%로 증가했으며 보통주당 장부가액은 2008년 61.0 스위스프랑 대비 11.1% 증가한 67.7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 자본력 강화와 핵심사업의 견실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스위스재보험의 이사회는 배당금을 1.00 스위스프랑으로 증가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배당 정책으로 돌아가는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스위스재보험의 최고재무책임자 조지 퀸(George Quinn)은 “2009년 스위스재보험의 자본력은 매 분기 꾸준히 강화되었으며, 연말 기준 AA 등급 초과자본이 90억 스위스프랑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스위스재보험은 AA 신용등급을 회복하고 전환사채를 상환하는 것이 우선과제임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2009년 한 해 재무적 유연성이 현저히 향상된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증대되고 있다.

2009년 4분기 4억 3백만 스위스프랑 수익 기록

2009년 4분기 순이익과 주당순이익은 각각 4억 3백만 스위스프랑, 1.18 스위스프랑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는 각각 -17억 스위스프랑, -5.34 스위스프랑을 기록한 바 있다. 연간자기자본수익률 전년도 -3.4%에서 7%로 증가했다.

2009년 4분기 손해보험 사업의 영업이익은 8억 5천 3백만 스위스프랑으로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에는 4억 9백만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 자연재해 발생이 적어 손해보험부문 합산비율은 전년 동기 104.6%(할인율 적용 전 103.3%)에서 88.3%(할인율 적용 전 86.5%)로 향상되었다.

2009년 4분기 생명보험 사업은 8천 8백만 스위스프랑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영업이익은 2억 2천 4백만 스위스프랑이었다. 자체적인 신용 스프레드 축소는 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지급률은 전년 동기 81.1% 대비 84.0%로 증가했다.

자산운용부문에서는 2009년 4분기 3.3%의 투자수익률(전년 동기 4.9%)을 기록했으며, 이는 2억 4천 8백만 스위스프랑의 감액상각 손실뿐 아니라 저위험 자산 및 단기 투자로의 방향전환을 반영하는 것이다.

고위험 포트폴리오 투자부문(Legacy)은 2009년 4분기 3천 4백만 스위스프랑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2008년 동기간에는 31억 스위스프랑의 순영업손실을 기록했었다.

견실한 핵심사업 실적

금융위기의 절정에서도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여전히 견재함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2009년 스위스재보험 핵심사업의 견실한 실적으로 이어졌다.

손해보험사업은 여전히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 이익은 2008년 27억 스위스프랑에서 2009년 38억 스위스프랑으로 39% 증가했으며 신중한 언더라이팅과 자연재해 감소의 영향으로 합산비율이 88.3% (할인비율 적용 전 86.5%)로 향상되었다. 2008년의 합산비율은 97.9%(할인율 적용 전 96.1%)였다.

생명보험사업의 영업이익도 2008년 6억 9천 7백만 스위스프랑에서 2009년 7억 4천 6백만 스위스프랑으로 증가했으며 지급률은 2008년의 85.5%에 비해 3.1% 포인트 향상된 82.4%를 기록했다. 금융시장의 호전, 낮은 사망률, 2001년 계약 관련 중재결과 등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변액연금 사업부문의 부정적인 실적으로 일부 상쇄되었다.

자산운용부문은 저위험, 단기 자산으로의 전환 및 저수익률의 시장환경에도 불구하고 2009년 1.8%의 투자수익률을 기록했다(2008년 4.7%). 2009년 3분기 스위스재보험은 국채의 비중을 높이고 기업여신 헤징(hedging)을 축소시켰으며 우량 회사채의 비중을 높였다. 스위스재보험은 신용시장의 안정화에 따라 헤징(hedging)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고위험 포트폴리오(Legacy)의 현저한 감소

스위스재보험은 2009년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현저히 감소시켰다. 포트폴리오 CDS를 종료하고, 과거 구조화 CDS의 여러 포지션을 매도했으며 금융보증 재보험의 92억 스위스프랑에 이르는 장부상 잔존책임을 청산했다. 스위스재보험은 2010년에도 고위험 포트폴리오의 잔여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킬 계획이다. 고위험 포트폴리오 부문은 2009년 1억 3천 9백만 스위스프랑의 영업이익을 창출했으며 이는 2008년 59억 스위스프랑의 순영업손실을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비용절감

스위스재보험은 2009년 2억 5백만 스위스프랑(구조조정 비용 차감 후)의 순비용절감을 이루어내 효율성 향상의 목표 달성에 충실함을 입증했다. 이는 원래 목표인 1억 스위스프랑을 상당히 상회하는 것으로 2010년말까지 4억 스위스프랑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는 차질 없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월 계약갱신: 수익성에 초점 유지

업계의 자본력 회복과 허리케인의 부재로 시장경화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재보험은 2010년 1월 계약갱신에도 여전히 신중한 언더라이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더불어 스위스재보험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의 축소, 보증보험 부문의 입장 조정, 비례 재보험 감소와 비비례 재보험 확대를 통해 전체 재보험 사업의 수익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었다. 1월의 재보험 계약갱신의 수입보험료의 규모는 15% 감소한 반면 전체 효율의 적정성은 2008년의 106%에서 108%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스위스재보험은 2010년 계약년도 손해보험 합산비율을 93%로 예상하고 있다.

전망

스테판 리페는 “그 기반이 견실하기 때문에 나는 스위스재보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규모나 다양성에 있어서 스위스재보험과 같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는 재보험사는 거의 없으며, 더구나 스위스재보험의 자본력, 언더라이팅 실적 및 혁신성을 따라올 재보험사는 더욱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므로 지금이야말로 목표를 재설정할 적기라고 스위스재보험은 믿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의 자기자본수익률 목표는 12%이다. 이 목표에는 저수익률 환경과 저위험 및 단기 자산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이 반영되어 있다. 2010년에도 투자 포트폴리오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잔여 고위험(Legacy) 포트폴리오의 추가적인 청산 등 남은 과제들이 있으나 이 또한 2010년 한 해에 걸쳐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편집자 주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고도로 다각화된 선도적 글로벌 재보험사로 전세계 20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1'을,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